



조경수목산책(Ⅱ X Ⅶ)

- 팽나무 -



임 경 빈
농학박사

1. 팽나무 일반

팽나무는 우리나라에서 오래 사는 나무의 일종으로 잘 알려져 있고 따뜻한 곳을 좋아하는 생리를 지니고 있다. 팽나무속(Celtis)의 나무들은 느릅나무과에 속하고 겨울에는 잎이 떨어지는 교목이다. 속명 Celtis는 켈티스로 발음하는 것이 옳으

나 책에 따라서는 셀티스로 읽는다고도 했다. 팽나무는 학명이 *Celtis sinensis* var. *japonica* Nakai 이고 한자명은 팽목(檉木), 가목(榎木), 박수(朴樹), 박수(樸樹) 등 여러 가지이나 앞의 두 가지가 흔히 쓰이고 있다. 중국에서는 팽나무속을 박속(朴屬)으로 나타내고 있다.



▲부산구포동 팽나무 전경 1994. 8. 30



▲경주계림의 팽나무 1985. 10. 4



▲부안 현경면의 팽나무

팽나무속은 북반구의 온대와 열대지방에 분포하고 세계적으로 약 70종이 있다고 기재되고 있다. 열매는 둥근 핵과(核果)이고 콩만한 크기를 가지고 있다. 먹기도 한다. 영명은 학베리(Hackberry) 또는 네틀츄리(nettle tree)이다. 잎은 어긋나고 거치는 있거나 없거나 한다. 우리나라에 있는 팽나무는 일본에서도 보편적으로 분포하고 있다. 높이 20m, 줄기직경 1~1.5m에 이르고 수피는 회흑

색이며 굵은 나무는 줄기의 아래에 큰 혹을 잘 만든다. 뿌리목 부근의 결뿌리가 굵게 발달해서 기괴한 모습을 만드는 일이 흔하다. 굵은 결가지가 꼬이면서 넓은 공간을 잘 차지해서 역센 위엄같은 분위기를 만든다. 그래서 우리나라의 큰 팽나무는 서낭당나무나 신목(神木) 등으로 되어 민속신앙의 대상물이 된 것이 많다. 팽나무의 열매의 색깔은 홍갈색이나 노랑계 익는 종류도 있다.

2. 팽나무의 노거목성

팽나무는 우리나라 남쪽지역을 대표하는 낙엽활엽수종이라 했다. 이것을 뒷받침하는 자료를 산림청에서 간행한 보호수지(1984년, 648쪽)에서 찾아볼 수 있다. 산림청 예규로서 『천연보호림 및 보호수의 보호관리요강』이란 것이 규정되어 있다. 그 중 보호수(保護樹)의 지정조건을 보면 시도(市道)나무는 수령 500년 이상, 시군 나무는 수령 300년 이상, 읍면(邑面)나무는 수령 200년 이상, 마을나무는 수령 100년 이상의 나무로서 희소가치가 인정되고 고사(故事)나 전설이 있으며 무엇을 상징하며 따라서 보호의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것으로 되어 있다. 이처럼 보호수에도 품격의 계층이 있고 중요한 요건은 수령으로 되어 있다. 그러나 노거수의 수령은 정확한 측정을 할 수 없으므로 다소는 직관에 의한 분별이 있을 수 밖에 없다.

그런데 보호수지에는 총 9516그루의 노거수가 지정되어 있고 이것은 결코 적은 수효가 아니며 이를 참고하므로써 수종별 그리고 지역별의 분포내역이 잘 파악될 수 있다. 이때 느티나무가 5408그루로서 단연코 앞서고 있고 다음이 팽나무로서 1,062그루에 이르고 있다. 세 번째가 은행나무로서 701그루이며 그 뒤 소나무와 회화나무, 향나무 등이 따르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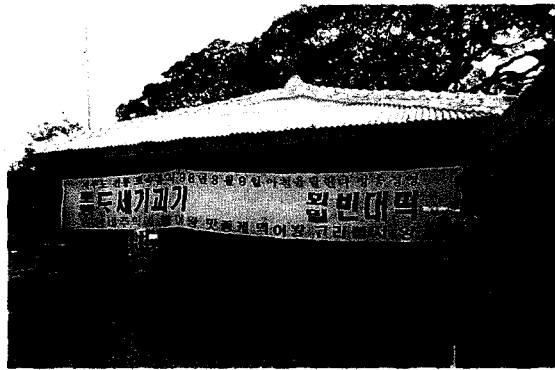


▲제주성읍마을
팽나무
1998. 10. 23

여기에서 팽나무의 장수성(長壽性)과 거목성(巨木性)같은 것을 짐작할 수 있다. 그런데 제주도에 있어서는 총 보호수의 약 66%가 팽나무이며 경남은 22%가 전남은 26%가 팽나무로 되어 있다. 그런가하면 경기도와 강원도에는 1% 이하라는 낮은 숫자이다. 이것은 팽나무가 아열대성의 나무란 것을 뜻해준다. 더욱이 제주도에 있어서는 도(道)나무로서는 팽나무 이외에 다른 수종은 없다. 물론 보호수의 선정이 정밀하고 적격하지 못한 점은 있다손 치더라도 팽나무의 위상과 생태적 성질을 짐작하는 데에는 넉넉하다.

3. 성읍리의 팽나무들

남제주군 표선면 성읍리(城



◀성읍마을의
팽나무와 음식점
1998. 10. 23

邑里)에 천연기념물 제 161호로서 팽나무와 느티나무의 노거수가 서 있다. 우리나라에서 이렇다 하고 내놓을 만한 나무들이다. 나는 이곳을 몇 번인가 찾았지만 가장 근래의 답사로서는 1998년 10월 하순경의 일이다. 어느 때에나 이곳 팽나무와 느티나무는 항상 건강했고 공간을 고루 점유하는 가지의 골격은 예술성을 듬뿍 담고 있었고 오래가는 생명의 존엄

성같은 것을 느끼게 해주었다. 한 톨의 열매에서 짝이 터서 이런 나무로 저처럼 웅대한 생명체로까지 될 수 있는 건가하고 몇 번인가 놀래본다. 한 톨의 씨앗에는 한량없는 발전의 소질이 담겨 있다. 창조주의 신비에까지 상념을 쏘아 올려본다. 성읍마을은 조선조시대 정의현(旌義縣)의 지방행정의 중심지였다고 하며 이들 노거수는 이곳 일관헌(日觀軒)의 주변에



▲팽나무 잎

있었기 때문에 잘 보호된 것으로 보고 있다. 이곳의 팽나무는 수고 20m에 육박하고 가슴높이 줄기둘레는 25~45m에 이른다. 둘레 50cm나 되는 송악이 팽나무를 감고 올라가고 있는데 이 또한 장관이라고 할 수 있다. 성읍마을에 이르면 이곳 토속음식을 파는 식당이 있고 그 맛이 뛰어나서 그대로 이곳을 떠나는 사람은 거의 없다. 노거수가 발취하고 있는 또 하나의 부가가치라고 할 수 있다. 차를 운전해야 할 사람도 토속주와 안주의 맛에 빨려드는 것이다.

4. 필자 고향의 팽나무

내가 살던 고향마을은 생산성이 낮고 경지면적에 비해서 인구가 다소 과다한 산골마을이었다고 짐작된다. 내 나이 거의 30 가까이 될 때까지 고향에 발을 디디고 생활반경을 갖대질 했기 때문에 나의 고향은

나의 생애의 긴 폭을 차지한다. 그만큼 고향에 대한 향수가 짙고 길 수 밖에 없다. 많은 시객들은 고향을 떠나 여창(旅窓)에서 향수를 달래는 좋은 시문장을 남기고 있다. 그러한 심정은 고향을 멀리 한 사람에게는 다 통하는 심정이다. 『고개를 들어 산 위에 뜬 달을 바라보고 고개를 숙여서는 숙연하게 고향을 생각노라』하는 상황은 누구에게나 공통되는 것이다. 고향을 더듬어 보지 않은 사람이 어디에 있겠는가 말이다. 팽나무가 화제가 될 때마다 나의 생각은 나의 고향마을로 달려간다. 우리 동네에는 몇 그루의 팽나무가 있었다. 그것은 오래되어 크게 자란 나무였다. 두 세 그루는 우리 집 뒤쪽 산자락 언덕바지에 나란히 서있는 것들이었다. 가을에 익는 그 열매를 주워먹은 기억 이외에는 이 나무들에 대한 지식을 따로 별반 없다. 문제의 팽나무는 우

리마을 서낭당 나무로서의 그것이였다. 우리 마을은 25호 정도의 집이 있었고 인구는 150명을 왔다갔다했다. 나는 겨울 방학이면 동네 사랑방에 가서 친구들과 인구수를 살펴보는 습관같은 것이 있었다. 대체로 가난한 사람들이 모여 살고 있었다. 그 가난을 그들이 좋아한 것이 아니라 피할 수 없어서 체념에서 오는 평안이었다. 동네사람들은 그것을 겸허하게 저항없이 받아들여서 승화된 즐거움도 만들어내고 있었다. 그래도 조상의 제사모시기에 애를 썼고 효행과 집안의 평화유지에 모두들 힘썼다. 동네 조직체의 단합에는 모두 열성을 보였다. 겨울밤에는 모여서 호랑이야기, 귀신이야기 그리고 괴상한 이야기들을 나누었으며 가난을 슬퍼하는 녀두리같은 것은 없었다. 정월초가 되면 서낭당제사 치를 이야기가 오가고 지난 한 해 동안 깨끗하고 무사히 지낸 집안의 어른을 뽑아서 서낭당 제주로 위축했다. 서낭당에는 큰 돌이 가운데 있었고 이것을 둘러싼 키낮은 나무들이 우거져 있었다. 마을사람들은 평소에는 그곳에 접근하는 것을 매우 꺼려했다. 잘못하다가 서낭당신의 노여움을 살까봐 조심하는 것이였다. 이 서낭당 핵심에서 약 50~60m 떨어진 길가에 팽나무의 노거목이 서 있다. 정월보름 때가 가까워 오면 이 팽나무와



▲부산 구포동 팽나무, 소나무, 당집 1994. 8. 30



▶부산 구포동 팽나무의 할머니 당집과 소나무 1994. 8. 30

서낭당을 새끼로 연결해 놓는다. 새끼에는 흰 종이 조각이 곳곳에 꽂아진다. 마을의 행운을 비는 새끼줄이었다. 이 새끼줄이 쳐진 팽나무의 사진은 내가 쓴 책 나무백과(1)[일지사, 1997년 11월 간행, 312쪽]에 선명하게 제공되고 있다. 그 전에 나온 책은 사진의 질이 좋지 못해서 새끼줄까지 볼 수 없었으나 그 뒤 사진을 새 것으로 교체해서 그 뒤의 책부터는 새끼줄에 꽂은 종이조각까지 식별할 수 있다. 1976년 2월에 찍은 사진이다. 지금은 현대화가 되고 그 때문에 동네가 폐촌이 되다시피해서 서낭당 모시기를 거의 하지 않고 있다. 거의 모

두 떠나고 6~7집이 남아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 빈집들이 보기 흉해서 귀신집같이 보인다고도 해서 면에서 한 집당 30만원의 철거비용을 보조하고 불도저로 밀어붙인다고 한다. 이러한 새로운 모습은 현대화, 산업화가 가져다 준 선물이다.

팽나무가 서 있는 지점을 우리는 팽나무거리라고 말했다. 팽나무거리에서 200m쯤 동네를 떠나면 그곳을 돌상거리라 했다. 돌상거리에는 돌이 많이 쌓이고 그곳에는 들어선 잡목

들이 많았다. 팽나무는 우리 마을 서낭당의 한 분자로 우뚝 서서 동네를 지켜준 것이다.

5. 부산 구포동의 팽나무

부산시 북구 구포동에 500년 생으로 추정되고 있는 팽나무 한 그루가 있는데 그 당당한 위용에는 서절로 고개가 숙여진다. 이 나무를 더 잘 보호하기 위한 대책이 강구되어야 한다는 과제를 안고 나는 이 나무의 환경변화를 답사하기 위해서 1994년 8월 30일(화) 항공

기편으로 김포를 떠나 김해공향으로 갔다. 이 팽나무는 천연기념물 제309호로 수고 17m, 가슴높이줄기둘레 5.5m, 수관직경 동서로 21m를 넘고 남북방향으로는 23m를 넘는 거구이다. 처음에는 이 나무가 차지한 공간이 비교적 넉넉했지만 물려드는 인간들의 등살에 점유공간의 침식이 있게 되자 이 나무를 건전하게 살리자는 목소리도 높아 그곳으로 간 것이다.

이 나무보다 더 큰 몸집을 가진 나무는 부산지역 아니 경남 전체를 두고 말하더라도 없을 것으로 안다. 이 마을의 당산목으로 정월 대보름이면 동민 중에서 정결한 사람을 제주로 뽑아 마을의 평안과 풍어를 기원하는 제사를 올린다. 제주를 뽑는 형식이 흥미로운데 먼저 팽나무 아래에서 무녀가 긴 대를 잡고 그 대(竿)에 신이 내리면 시키는 대로 그 대를 따라 어느 집으로 가게 되고 그때 그 집주인이 제주로 선정되는 것이다. 밥, 백떡, 나물 등 정갈한 음식을 제수로 장만하는데 이때 돼지머리와 같은 육류는 쓰지 않고 있다. 이 나무에 치성을 드리면 소원성취가 된다는 것을 그곳 사람들은 굳게 믿고 있으며 근래에도 밤이 되면 촛불을 밝히고 기원을 올리는 사람들을 볼 수 있다한다. 이 나무 아래에는 신령을 모시는 당집이 있고 관리비를 희사

하는 사람들이 있어 보호가 잘 되고 있다. 사람들은 이곳을 할아버지 당산이라 부르고 이곳에서 약 1.5km 떨어진 곳에 있는 당집을 할머니 당산으로 말하고 있다. 두 지점은 전에는 멀리 서로 바라볼 수 있는 지형이었으나 그간 높은 건물이 들어서서 그 시계가 막힌 것을 사람들은 안타까워하고 있었다.

당집 안에는 위패가 있었고 天地神明神位 또는 檀君聖祖神位 등의 글귀를 읽을 수 있었다. 옛부터의 민간습속적 신앙의 분위기가 물씬 풍겨나고 있었다. 이쯤되면 본의던 아니던 이곳 팽나무는 신령한 기운을 담게 될 것이다. 줄기의 용기와 굴곡은 강렬한 힘의 분출을 연상케 했다. 이 나무에 근접해서 큰 소나무 두 그루가 자라고 있었는데 뿌리목줄기둘레 32m 및 39m로 측정되었다. 나는 이보다 더 큰 팽나무를 아직 보지 못하고 있다.

6. 木에 춘하추동

나무 목 변에 봄 춘(春), 여름 하(夏), 가을 추(秋), 겨울 동(冬) 자를 붙여 합자(合字)를 하고 있는 것은 흥미롭다. 棟 栖 楠 등 방향을 붙인 글자도 있다. 椿자는 참죽나무 춘으로 읽는데 일본 사람들은 동백나무 춘으로 만들고 있다. 榎(가)는 뒤에 더 설명하기로 한다. 槲는 노나무 추(개오동나

무), 가래나무 추, 산유자나무 추, 바둑판 추 등으로 읽어서 정해진 한 나무를 뜻하는 것은 못되는 것으로 이해되고 있다. 柘사전에 『나무이름 중』으로 설명하고 있다. 파초에 닮았다 했으나 그것이 무엇인지 알기 어렵다. 일본사람들은 『잣나무』, 『목서』, 『Nagi, 那木』에 柘 적용하고 있다. 따라서 柘은 일반적으로는 목서로 이해하고 있으나 이것은 반드시 그러한 것도 못되는 것 같다.

榎자는 榎자와 같은 자라고 했다. 본충강목에 보면 『榎는 槲의 종류이다. 잎은 크고 빨리 떨어지는 것을 槲라 하고 잎이 작고 빨리 자라는 것을 榎라고 한다. 두 종류의 나무 모두 거친 수피를 가지고 있다』라고 했는데 이 정도의 설명으로서 는 榎가 어떤 나무인지 알기 어렵다. 그리고 책에 榎를 팽나무로 하는 것은 근거없는 것이라 했다. 이쯤 되면 榎가 어떤 나무인지 생각하기가 더욱 어렵게 된다.

정약용 선생이 쓰신 아언각비에 榎자가 설명되고 있다. 榎자는 榎와 같다고 했다. 선생의 글 내용은 지금의 식물학적인 배경으로서는 도저히 이해가 가지 않고 혼돈스럽다. 그래서 그 내용의 논의는 이곳에서는 하지 않기로 한다.

〈다음호에 계속〉